

소망교회 새해감사예배

2024. 1. 1 | 1부 오전 5:30 | 2부 7:30 | 3부 9:30 | 4부 11:30



담임목사 김경진

교독문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엡 1:3-9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0-12)

예배로부름		인 도 자
송 영		찬 양 대
기 원		인 도 자
찬 송	31	일 어 서 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		다 같 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한 이 한 해가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삶이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생명을 빚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찬탄하셨듯이,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입술에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솟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에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몸짓이 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 평화의 기도가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 사랑으로 충만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퍼했고, 외로워했으며, 절망하고 낙심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둠과 절망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을, 죽음에 있는 곳에 주님의 생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기쁨을,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길잡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새해에는 이 땅에 평화와 화해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통일의 역사를 이룩하기를 소원하오며,
이 세계가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과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희망의 씨앗’을 심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성 시 교 독		94번(새해 2)		얏 아 서
찬 송		550		다 같 이
기 도		이재용 · 김주경 · 권정혁 · 장재원 목사		
성 경 봉 독		사 27:12~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말 씬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김경진목사
기 도				설 교 자
찬 송		552		다 같 이
성 찬 예 식				위 원 들
찬 송		애국가(1절, 일어서서)		다 같 이
축 도				김경진목사
송 영				찬 양 대